소의 해에 얽힌 이야기

기축년己丑年 설 세시기歲時記

權 在 琮
편집위원

2009년은 기축년己丑年 소의 해이다. 이는 지구축地球軸의 월력月曆에 따른 우리 전통의 음력이고 1월 1일 신정新正은 태양축太陽軸 일력日曆에 따름인데, 이 날이 음력은 섣달 초엿새로 쥐의 해인 무자년戊子年 12월 6일이다. 그리고 소의 해가 되는 기축년 설날, 정월 초하루는 양력 2009년 1월 26일이다. 이래서 덤같은 이 기간을 어른이 되고 싶은 청소년은 양력으로 가고, 나이먹기가 싫은 노장년은 음력으로 버틴다. 결국 세월이 흘러 조만간에 해는 바뀐다.

연말연시가 되면 으레 한해를 돌이키며 ‘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다고 호들갑을 떤다. 지난 무자년도 그랬다. 10년의 이른바 ‘ 좌편향 정부 ’가 가고 ‘ 우편향 정부 ’를 핑계로 시작된 촛불시위의 저항이 해일로 밀려왔다. ‘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는 극언과 요람의 아기를 무기삼았다는 ‘ 유모차부대 ’가 등장하는 영상이 공중파를 타면서 정권퇴진의 불길로 인화될 지경에 이르러서는 ‘ 우편향 정부 ’는 350여만 표차의 압도적 지지를 살리지 못하고 초장에 주눅들어 전전긍긍하였다. 와중에도 우리에겐 북경 올림픽의 불굴에 찬 낭보가 있었지만 상상를 초월하는 유가폭등에 이은 미국 월가 진원의 금융쓰나미에 세계경제는 넋이 나간 토붕와해土崩瓦解가 되었다. 이 바람에 초강대국 북미제국의 천자로 애프로어메리칸Afro-American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등극하는 경이가 이루어졌다.

엄청난 격동의 무자년, 쥐의 해가 꼬리를 사리고 기축년 소의 해가 황소걸음으로 성큼 다가왔다. 소는 우선 육덕이 큼직한 데다 뚜벅뚜벅 걷는 걸음걸이가 좋다. 게다가 왱왱 달려드는 파리떼의 성가심에도 꼬리를 가끔 내젓기만 할뿐 지긋이 눈을 감고 되새김질하는 모습이 보는 이의 마음을 여유롭게 한다. 지난날 봄여름 모내기를 위한 논갈이와 써레질을 도맡아 하고 겨울에는 달구지에 땔나무를 높다랗게 싣고서 주인의 채찍질을 마다 않고 콧김을 몰아쉬며 박석고개와 실핏재를 넘나들었는데 이런 소의 모습은 실로 우리 민족의 은근과 끈기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소띠생은 겉으로 충직하고 둔탁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에다 굽힐 줄 모르는 추진력을 가진 성격의 사람이라 한다. 해서 소해에 태어난 사람은 꾸준히 노력해 성공하는 이가 많으며 이로움이 따르므로 집안이 부유하고 화목하게 되는데, 혹간은 욕심과 사치가 지나쳐 화를 부를 수도 있다니 경계할 대목이다.

기축년의 기축己丑은 10간干 12지支를 조합한 60갑자에서 26번째인데 10간의 기己는 자기 몸이다. 시경詩經의 무이식 기武夷式己의 기己는 기紀와 같은 뜻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런 기己자는 말의 종결적 의미 ‘ 따름이다 ’의 뜻을 가지는 이已와 뱀의 뜻을 가지는 사巳와는 별자別字이지만 모양이 비슷해서 우리가 늘 헷갈린다.

역술로는 여섯째 천간天干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다. 방위로는 중앙, 오행五行으로는 토土로 튼튼한 중앙무대를 의미한다.

축丑은 12지支에서 제2자인데 시간으로는 오전 1시부터 3시까지를, 방위로는 북북동을 가리키며 24방위의 하나로 정북으로부터 동으로 30도 되는 방위를 중심으로 한 좌우 15도 사이이고, 달로는 음력 12월이며 띠로는 소다. 이를 가지고 금년 운세를 보면 길吉한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통화환란通貨換亂에 허덕이고 실물경제가 바닥을 헤매지만 경제구조의 기초가 튼튼함으로 해서 일의 수습이 지도자의 올바른 선택에 달린 셈이 된단다. 여기에 화합에 장단이 맞으면 길운이 트일 수 있는 괘卦가 나온다고 한다. 사유축삼합巳酉丑三合, 즉 소띠는 닭띠、뱀띠와 어울린다고 한다. 그런데 소띠와 말띠는 각기 음陰과 양陽이어서 겉으로는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속궁합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더 큰 상승 효과를 가진다고 역술에서는 말한다.

이렇게 정초가 되면 무슨 띠는 길이고 무슨 띠는 그에 못 미친다며 띠에 얽힌 얘기로 긴 겨울밤을 윤택하게 하는데 알고 보면 이 12지의 열두 띠는 우열이 매겨질 성질이 아니란다. 고래로 육축六畜이라 하여 사람과 가까운 가축을 자리매김했는데 소、말、돼지、양、개、닭 등이다. 이 가운데 소를 늘 으뜸으로 친다. 중국에서는 전설적 제왕帝王으로 머리가 소의 모양이고 몸은 사람인 신농씨를 농사의 시조신으로 받들며 원시부터 농사가 사람과 소의 합작이었음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족이 소를 기른 역사

고대사회에서 소는 제천의식이나 순장용殉葬用으로 쓰였다. 기원전 1~2세기로 추정되는 김해의 ‘ 조개무지 ’에서 소 이빨이 나오고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의 부여夫餘조에 관직명을 짓거나 거병擧兵을 점치는 데 소를 이용했다고 하고 있다. 즉 마가馬加、우가牛加、구가狗加 등의 관명은 육축의 이름을 딴 것이며 전쟁이 있게 되면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하고 그 발굽으로 길흉을 점쳤다 하는데 이때 소발굽이 벌어져 있으면 흉조, 합쳐 있으면 길조라 했다 한다. 이와 같은 기록은 진서晋書 부여조에도 있는데 소는 제사 때 희생으로 썼을 뿐아니라 점술에도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면 신라 눌지왕 22년, 서기 438년에 백성에게 소로 수레를 끄는 법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고, 지증왕 3년, 서기 502년에는 소로 논밭을 갈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다. 또 우황牛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성덕、경덕、혜공、경문왕조 등에 인삼과 함께 우황을 당나라에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문무왕 2년에도 김유신金庾信이 당의 장수 소정방蘇定方에게 우황 19냥을 증정한 것과 소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우유를 먹었다는 기록도 등장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3~4세기경 쟁기로 밭갈이를 하고 수레를 만들어 탄 것을 기록하고 있고, 고구려 벽화에서는 서기 357년에 만든 ‘ 안악3호분 ’에 검정소、누렁소、얼룩소가 구유의 여물을 먹는 그림이 나온다. 서기 407년에 조성된 ‘ 덕흥리고분 ’에서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고삐를 쥐고 소를 모는 견우상과 개를 데리고 있는 직녀상을 그려 가상의 전설세계를 현실로 표현한 ‘ 견우직녀도 ’가 있다. 5세기 ‘ 용강무용총 ’에는 소가 바퀴 달린 가마를 끄는 그림이 있고, ‘ 쌍영총 ’에서도 비단으로 지붕을 씌워 안팎을 장식한 큰 가마를 소가 끄는데 그 모습이 늠름하다.

외국의 예를 보면 고대문명의 발상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기원전 3천년께 이미 소를 이용한 농경이 있은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는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땅을 일군 것으로 보는데,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소를 이용한 농경의 시작은 영농기술의 일대전환으로 봐야 한다.

전쟁으로 쓰인 소의 이야기는 중국 제齊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燕나라 군사에게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긴 제나라는 천여 마리의 소를 이용했는데 소에 용을 그린 붉은 비단옷을 입히고 뿔에는 날카로운 창검을, 꼬리에는 기름에 적신 갈대를 묶고 밤중에 불을 붙여 적진으로 내몰아 빼앗긴 천여 리를 수복했다는 기록이 있다.

유교、불교、도교 등 전통사상에서도 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교에서 소는 의義를 상징했으며 불교에서는 사람의 진면목을 소에 비유했다. 특히 불교의 선종禪宗에서는 마음을 수련하는 순서를 심우도尋牛圖로 표현하고 있다. 동자童子가 본성인 소를 찾아 길들이는 과정을 10단계로 나타내 십우도十牛圖라고도 한다. 고려 때의 보조국사 지눌知訥은 호가 참다운 마음을 기르는 목우자牧牛子였으며, 만해 한용운도 그의 자택을 심우장尋牛莊이라고 하였다.

도교에서 소는 유유자적을 의미했는데 유가에서도 속세를 떠나 은일자적할 수 있는 선계仙界를 동경하여 조선시대 선비들이 소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즐기고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시나 그림으로 표현했다. 김식、윤두서、김홍도、최북 등은 소를 잘 그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한편 소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암울한 상황에서 화가 이중섭李仲燮은 역동적인 소를 모티브로 활용해 우리의 순박하면서 잠재된 에너지를 나타냈다.

■우리 민속과 소

꿈에 소가 문밖으로 나가면 재물이 없어지는 등 안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는 꿈속의 소가 조상이나 재산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월들어 처음 맞는 소의 날 상축일上丑日은 소의 명절이다. 이 날은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소죽에 콩을 많이 넣어 잘 먹였다. 또 도마질이나 방아질을 하지 않고, 쇠붙이로 만든 연장을 다루지도 않았다. 도마질을 하지 않는 것은 쇠고기를 요리할 때 도마에 올려놓고 썰어야 하는데, 소의 날이므로 이를 삼간 것이다. 또 연자방아가 있는데 이는 소에 멍에를 메어 돌려야 하는만큼 이 역시 하지 않았다. 쇠붙이 연장도 쓰지 않는 것은 이를 이용해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소를 이용해 풍년이나 복을 비는 민속 의식도 각지에 두루 퍼져 있다.

관동關東과 관북關北지방에서는 이 날 성기가 큰 남자가 벌거숭이로 목우木牛나 토우土牛를 몰고 밭을 갈며 풍년을 비는 나경裸耕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땅은 풍요의 여신을 상징한다. 성기가 큰 남성이 땅을 가는 것은 결국 풍요를 일구는 행위로 본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같은 풍습이 땅이 비옥한 한반도의 서남지방에는 없었다는 점이다. 옛날 경상도 북부지대인 풍기와 은풍殷豊에서는 정월 보름날 우두머리 아전이 검은 소를 거꾸로 타고 거문고를 안고 관아로 들어가 원님에게 절하는 의식이 있었다. 함경도에서는 입춘立春 날이 되면 나무로 만든 소를 관청으로부터 마을로 끌고 나와 돌아다녔다. 두 의식은 모두 풍년을 비는 것이었다. 추석에는 소싸움도 벌어졌다. 싸움 날 아침에 그 주인은 소를 깨끗이 씻겨 여러 가지 천으로 꼰 고삐를 씌우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헝겊을 장식하고 목에 워낭을 달아주었다. 이같은 행사는 주로 경남 일대에서 유행해 마을 대항 소싸움 이판 등으로 이어졌다.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 청도에서는 국제적인 소싸움 대회가 벌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1637년 정축丁丑에 인조가 삼전도三田渡에서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었으며 전국의 하천을 거의 다 범람시킨 1925년 을축乙丑의 대홍수가 바로 소의 해에 일어났다. 시인 박목월은 ‘ 황소 예찬 ’에서 ‘ 어진 눈에 하늘이 담기고/엄숙한 뿔이 의지를 상징하는/슬기롭고 부지런한 황소여 ’라고 하여 소를 영물로 극찬했다. 설날 송아지가 울면 풍년이 온다고 믿었다. 농사를

7면으로 계속

격려에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권성두權性斗씨가 20만원을, 2009년 1월 5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권영세權寧世씨가 10만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니다.